선박 수리가 굼뜬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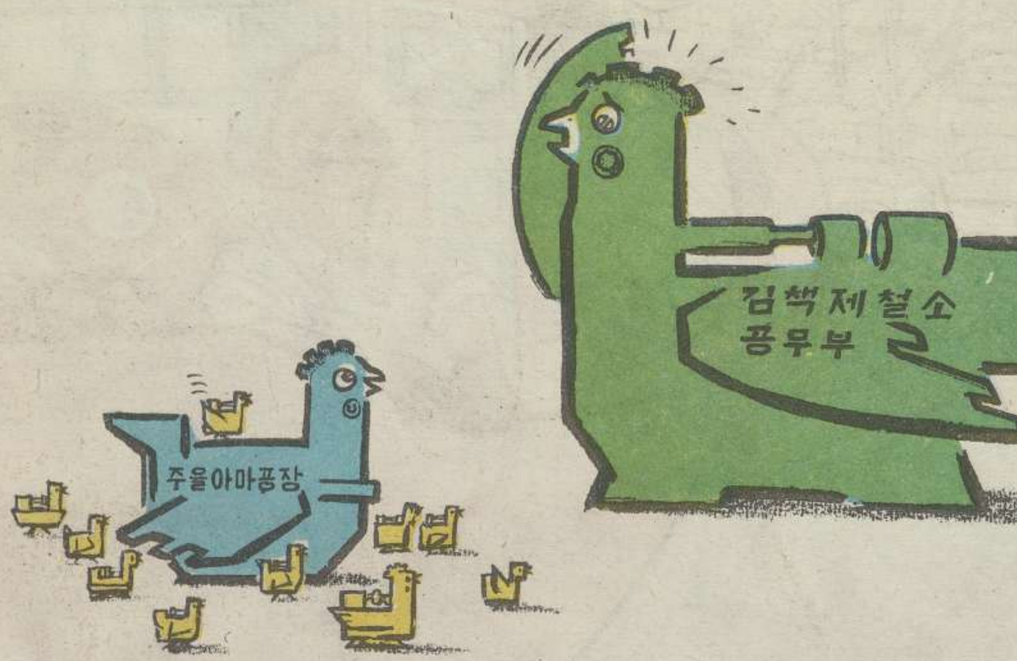
6월 하반호 (104) 1959년

화살

공장이 공장을 낳는다

홍 종호 그림

큰 닭과 작은 닭의 대화



백 인균 그림

작은 닭—넌 덩치는 큰데 새끼 한배 못치고 뭐 했니?
큰 닭………

조선 인민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

박 승히 그림

불'길

신 홍순

《선풍이다! 선풍! 선풍!》

서장은 손을 내 저으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서장님 선풍이라니요?》박 순경이 물었다.

《선풍두 몰라? 파업 선풍 말야!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 나는 동맹 파업 선풍이 이곳 탄광까지도 불어 들었단 말야!》

《예 참 아닌게 아니라 여기서도 쑥떡 저기서도 쑥군덕 눈치들이 달습니다.》

《그렇습니다.》

리 형사도 등이 달아 말을 꺼낸다.

《로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당장 지불해 달라고 항의서까지 내는 품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게 아니라 일촉 직발 사태는 바야흐로 위급한 형편에 처해 있단 말야! 지금 금방 광산 측에서 기별이 왔는데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 로동 시간을 줄궈 달라, 무슨 무단 해고 금지니, 이민 책동 반대니 벼라별 요구 조건들을 내 걸고, 인젠 정면으로 덤벼들고 있단 말이다! 어제도 경찰국장께서는 우리 관내만이 평온하다고 칭찬의말씀까지 하셨는 데 무슨 꼴이람!》

《서장님 아직 파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인제라도 예비 검속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온한 사상을 가진자들의 명단은 다 쥐고 있으니까요.》

리 형사는 수첩을 펼쳐 서장에게 보인다.

《에 이 기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래일부터 닷새동안 〈방공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방공 훈련입쇼?》

《그래 방공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의 주목을 딴데로 돌리는 동시에 파업 선동하는 놈들을 깡그리 잡아 들이란 말야!》

이튿날부터 〈방공 훈련〉이 시작 되였다.

뻔질낳게 공습경보 싸이렌이 울고, 등화관제가 실시되고 그리고 방공호에 대피 훈련, 짚 나까리에 불 질러 놓고 소이탄 끄는 훈련등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순경들은 모자 끈까지 잔뜩 졸라 매고, 개떼처럼 쏘다니면서 생트집을 잡아 인민들을 엮어 간다.

《이봐! 왜 여태 히다다끼두 안만들었어?》

《아니 히다다끼라니요?》

《히다다끼 몰라? 불을 터는 히다다끼! 그리구 바께쯔, 쇠갈구리, 물통, 모래, 거적데긴 어떻게 됐어?》

《예 인제 마련하는 중입니다.》

《잉 너두 불온 사상이다! 어서 갓!》

《임마! 뭘허게 여태 방공호두 안팠어?엉?》

《아니 지금 모두가 평화롭게 잘자는데 방공호는 파서 뭘 헙니까?》

《허라면 했지 무슨 잔소리야? 어?》

2년반 단축한다

황천왕동이—이크 서울 500리 길을 하루에 걷던 내 걸음으로도 따라 갈 수 없구나.

조 명식 그림

《고까짓 움각 같은게 소용 있나요? 눈 감고 아웅이지》

《음 너두 불온분자지, 가자!》

《이 자식아! 공습 경보가 났는 데 땅바닥에 납짝 엎드리지 않구 어디루 달아나?》

《예 방금 급해서 변소루 가는 길입니다.》

《이자식아! 폭탄이 떨어지는 데 내다버릴 변소는 무슨 변소얏! 훈련 규률 위반자는 알지? 경찰서로 가잣!》

《이봐! 스라는 데 왜 자꾸 가?》

《나 말이예요?》

《그래! 몸뻬를 입구 검정 수건을 쓰라는데 되지 않게 꼬리 치마가 뭐야? 엉? 왜 말을 안듣느냐 말야?》

《내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차를 타러 정거장엘 나가는 길입니다.》

《방공훈련 허기가 싫어서 어디루 내빼는 거지? 다 안다! 느 남편놈이 빨갱야! 잔소리 말구 가잣!》

이렇게 하여 방공훈련 기간에 경찰에서 주목하고 있던 요시찰 대상자는 깡그리 엮어 갔다.

《서장님 참 묘안이십니다.》

리 형사는 아첨하느라고 찬사의 말을 올린다.

《에 인제야 제깟놈들이…》

이때다! 전화 벨이 울린다.

《어? 뭐시? 파업? 아니 탄광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했다구?》

서장은 수화기를 놓고 털석 주저 앉는다.

로동자들은 더욱 격분에 차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에다가 《죄 없는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는 조목을 더 첨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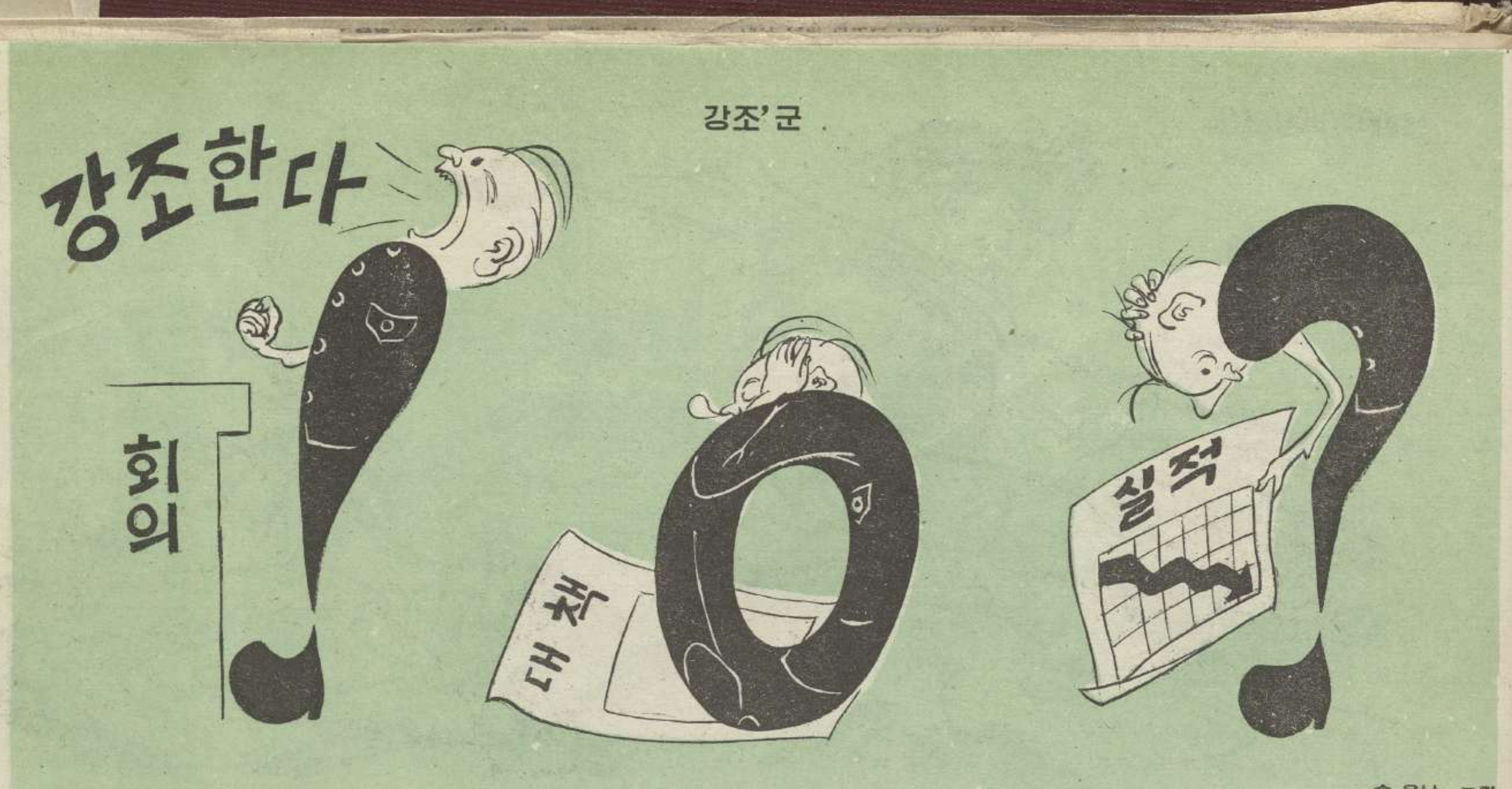
거세게 일어 난 이 불'길은 《히다다끼》로도 《공습경보》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강산이 변했다

리 영춘 그림

북반부에서　　남반부에서

강조'군



송 용남 그림

분주한 사람들

해주시 인민 위원회 상업부에 도 상업 관리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왜 시내 상점들에 간장, 된장을 자주 떨구군 하우?》

《뭐? 간장 된장이 떨어졌어요??》

《시 상업부에선 상점들에 나가보지 않는 모양이군?》

《왜 안나가요, 늘 나가 보는데요.》

이렇게 도 상업 관리국에서 이야기 하면 그 이튿날엔 상점들에 간장 된장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실지 공장이나 창고에 간장과 된장이 없어서 상점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 상업부에서 상점에 늘 나간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지금도 방금 자전거를 타고 상점들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하는가 했더니, 상점에 들려서는 그저 청소 미화 사업이 잘 됐는가, 상품 진렬이 잘 됐는가 하는 것만 보고는 돌아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다음 상점으로 달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점에 대한 지도의 전부다. 때문에 상점 일'군들은 시 상업부 일'군들이 오면 쑤군거린다.

《애, 위생 검열원 온다. 빨리 매대를 닦자!》

이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시 상업부 일'군들은 상점엔 늘 나가지만 어느 상점에 무엇이 품절되고 무엇이 체화돼 있는가조차 모르고 있다.

례로 채소가 로동자 사무원 문화인들의 주택 지구에 있는 사미 독채 상점에 품절돼 있을 때 다른 상점엔 체화돼 있다.

그리고 시 상업부는 상점들의 실사 사업조차 지도하지 않아 사미 독채 상점의 전 지배인과 부기장 상업부장이 좋아라고 상점 재산을 횡령하고 랑비하고 하는데도 눈뜬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가 다 썩은 다음에야 수출하노라고 지배인을 강직시킨다, 부기장과 상업부장에겐 법적 추궁을 한다 하고 야단을 쳤다.

최근에 그들은 이 상점 지도부를 두 차례나 갈아쳤는 데 그 자리에 새 일'군을 앉혀 놓고는 상점 사업의 개선 대책은 다 취한 듯이 생각하고 또 지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때문에 새로 온 상점 일'군들이 실무 수준이 어리여 자기 상점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 상업부 일'군들은 자기들은 거기에 관계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위생 검열만 하며 돌아 다닌다.

물론 그들은 바쁘다. 17명의 인원으로 7개의 상점을 지도하노라니 오죽 바쁘랴!

리 운봉

로력 점수를 매긴다

—애들아!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몇 점이나 매길만 하더냐?

조 명식 그림

이걸로 모든 사업을 한다

함남도 흥남 비료 공장 김 히 옥 그림

한 관료주의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황해남도 신원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최 성삼 동무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소개할만 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여 그것을 다음에 소개한다.

당 결정을 집행하는 사업에서

즉 그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오면 자기 군 실정에 맞게 집행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지 않고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에게 전달만하고는 해당 부문 부장에게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할 군 인민 위원회 결정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준다. 그래서 부장은 결정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온다.

《읽으시오》 그리고 잘 듣지도 않고 있다가

《그게 뭐야, 시시해》하고 게트림을 한다.

그러나 그 자신 어디가 어떻게 잘 못 되였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니 어떻게 고치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어떤 방향으로 쓰랍니까? 방향을 좀》.

그러나 시시하다고는 해 놨지만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위원장의 위신 문제다.

《아니 방향을 모르겠소? 전원 회의 기본 정신이 뭐요? 말해 보오, 한 번.》

부장이 전원 회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것을 반영하란 말이오!》

군 인민 위원회 지도원들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군인민 위원회 지도원들이 리나 하부 기관에 지도를 나갈 때 군 인민 위원장에게 지도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나 당 정책을 잘 모르는 위원장은 지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다.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억찌가 나온다.

《그렇게도 방법을 모르오? 가서 봤다 몰란 말이오. 그러면 수가 생기오.》

리에 내려가서

그는 자주 차를 타고 리들에 나타난다. 얼핏 보기엔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또 지도를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는? 차에서 내려서는 눈에 보이는 걸 현상만 보고 몇 마디 결론을 내리고는 곧 차에 올라 탄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군 인민 위원장이 오면

《군 위원장님 오시기 수고하셨습니다.》하고 허리를 굽힌 김에 제창《안녕히 가십시오.》하는 인사까지 해 버릴 수 있다고 우스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말 타고 꽃구경 하듯이 지도하는 데다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에게는 호령과 욕설로 지도하기 때문에 부장들이 위원장실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자기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아서 위원장은 더욱 딴데서 온 손님처럼 군내 실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그래서 협동 조합들에서는 파종이나 이앙과 같은 중요한 경제 계획에서 군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군 인민 위원장은 자기들이 내려 먹인 계획대로 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런 일도 가끔 생기군 한다. 파종 때 계남리에는 감자 종자가 150가마니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군내 실정을 모르는 군 인민 위원장은 감자 종자가 모자라 큰일 났다고 하며 멀리 량강도와 자강도에까지 가서 감자 종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신원군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농산물을 적게 내였고 가축을 많이 기를 수있는 자연 조건을 가지고도 적게 밖에 기르지 못하였다. 젖소는 등록은 백두 이상 해 놨지만 55두에서 밖에 젖을 짜지 못하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주먹치기 일'군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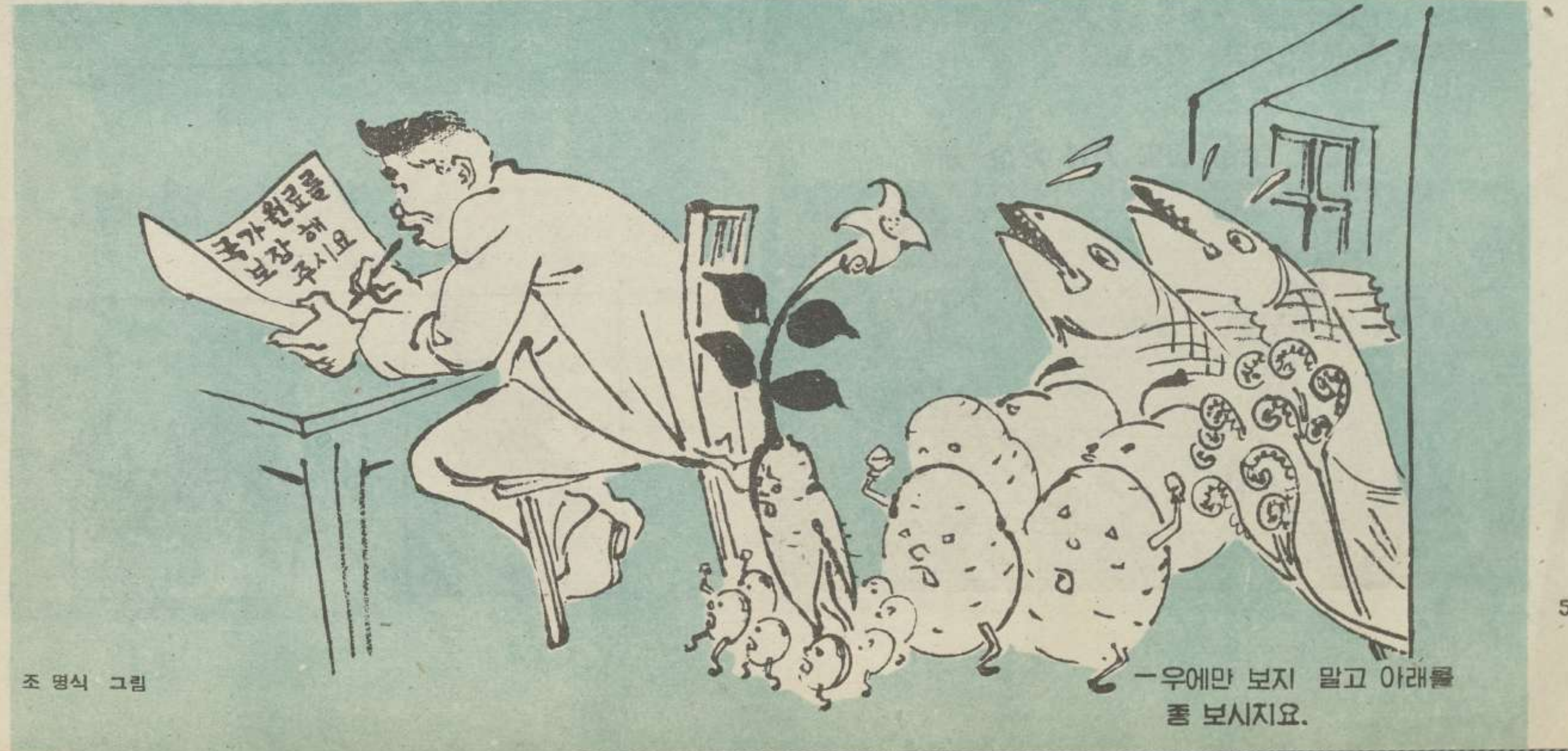
일이 안되면

자기가 지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도 일이 잘 안되면 군 인민 위원장은 아래 일'군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땀이 나도록 추궁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부 일'군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할 줄 모르는데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위원장은

《모르고도 지도하는 방법을 모르는가?! 모르면 밑의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땀을 빼 놓란 말이요! 그러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위신도 생겨진단 말이요!》

리 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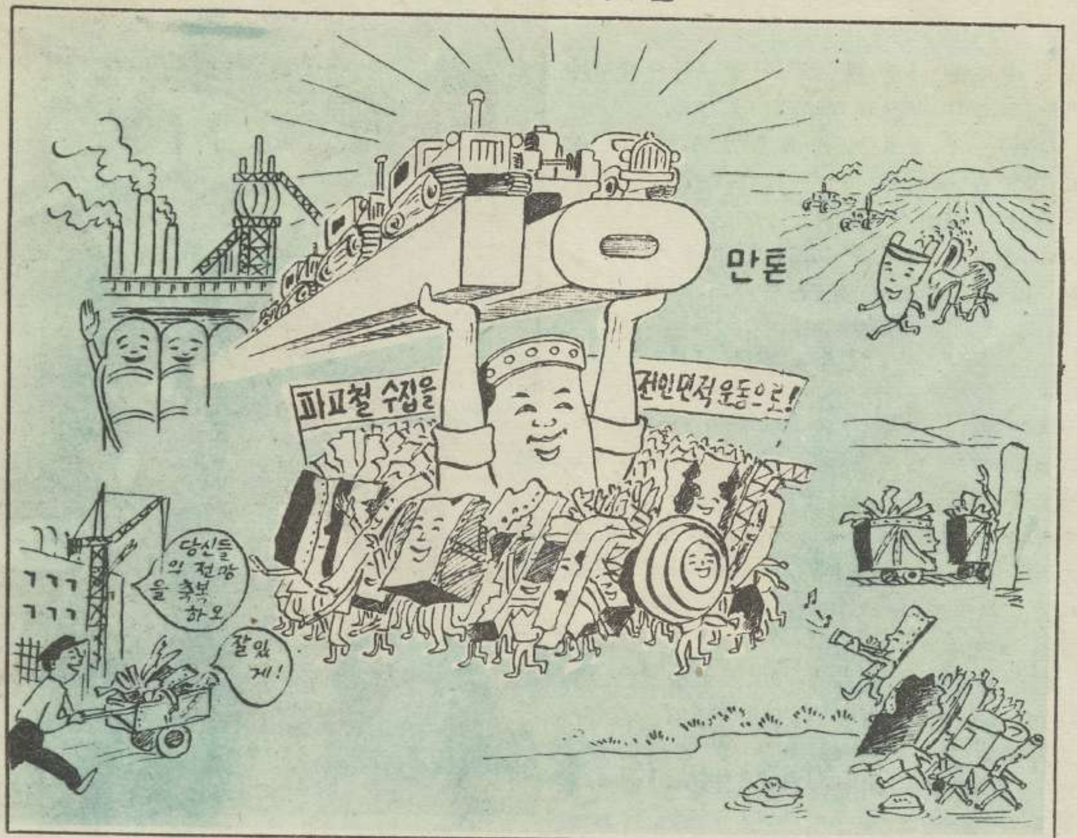
왜 우리를 몰라 보나요



조 명식 그림

—우에만 보지 말고 아래를 좀 보시지요.

티끌 모아 태산



성흥광산 리태호 그림

어느 인민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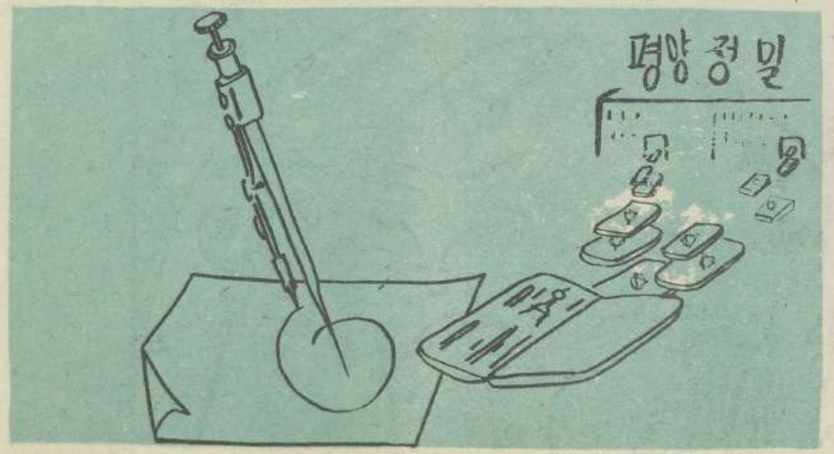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등잔 밑이 어둡다

—동무네 파고철 수집은 다 됐소?
—파고철을 수집하러 멀리 나가는 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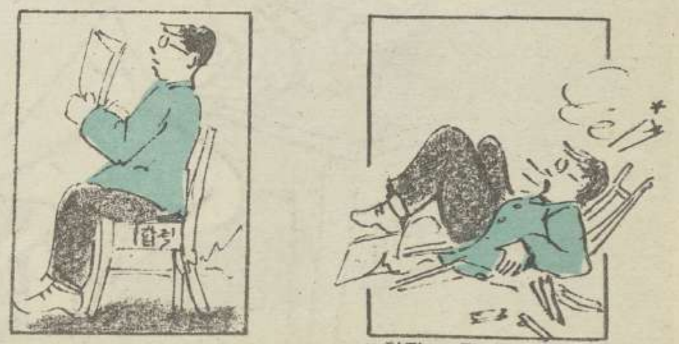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정밀치 못한 정밀 기계 공장 제품



평남도 강동 신 봉옥 그림

합격증 붙은 오작품



청진 13중 학교 차 종락 그림

아버지의 학습 시간

—쉬! 얘, 속으로 읽어라 아버지가 주무실 준비를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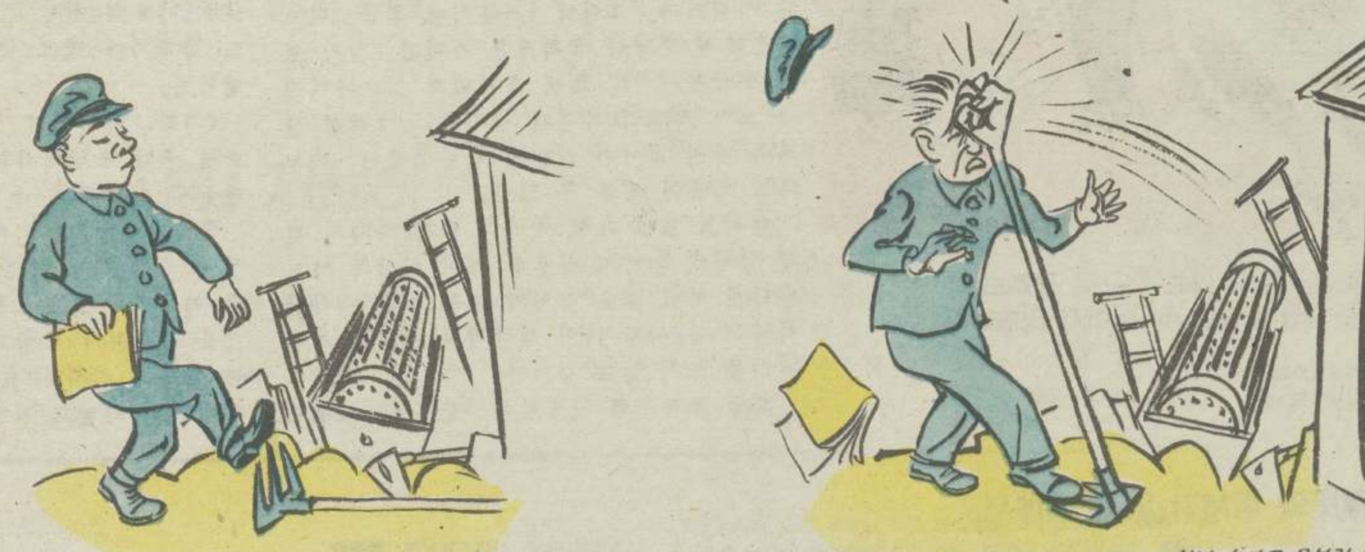
허 성필 그림

이런 며누리는 없는가?

남포 유리 공장 최 장렬 그림

농기들의 충고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기자재를 애호하지 않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영농기에 가서야 비로서 찾는 현상이 있다.



함남 홍산군 운봉리 덕천 농업 협동 조합
한 상 운 그림

함흥 제 3려관에서

함흥 제 3려관 접수구에서 어린애를 업은 녀성 동무가 접수를 청했다.

물론 그 녀동무는 공무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려관 경리 김 중녀 동무는 유리창 밖으로 쓱 훑어 보더니

《녀성 동무는 좀 곤난한데요, 단체 손님을 받아서 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무들과 같이도 좋고 식당 아주머니들과 같이도 좋으니 하루만 쉬고 갑시다.》

《거기도 좁아서 곤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녀동무 뒤로 온 남성 동무 세 명을 접수했다. 경리 김 중녀 동무는 걱정이나 하듯이

《녀자 손님 받지 않는다고 상부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참 곤난합니다.》

그 녀동무는 아는 곳도 없어서 접수구 앞 현관에 2시간 남짓이 앉아 있었다. 어린애는 잠들었다. 거이 밤 10시가 되여 직원들이 류한다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방이 차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날 밤 그 넓은 직원들의 방에는 녀 손님 세 명만 쉬고 직원은 한 명도 안잤다.

×

다음 날 아침. 그 녀성 동무와 식당 아주머니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어제 밤에는 직원들이 그리로 가서 좁으셨겠습니다?》

《주방에사 넓은 이간 방이 둘이나 있는데 좁을 텍이 있소?》

《그 방도 이렇게 찬가요?》

《그방이사 따끈따끈 하지비—》

이 려관 경리 김 중녀 동무나 그 녀성 동무나 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인데 그럴 수야 없지 않는가?

김 상애

최 영근 그림

탐사대—지도에는 이곳에 강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 데…!?
로인—나무 말으로 흘러서 강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데 없는 목재

《여보 판매 파장 동무, 저거 큰걸 좀 주어야겠소》

《침목 20본만 푹 주어야겠소—》

5월 23일. 본궁 제재 공장 판매부 사무실에서는 이 공장이 대상하고 있는 많은 기업소들에서 자재 인수원들이 흥정을 하고 있다.

본궁 화학 공장, 흥남 비료 공장, 흥남 건설 트레스트, 그외 여러 곳에서 인수원들이 온것이다.

인수원들은 우선 현장부터 휘—둘러 보고 오늘 생산되는 목재들 가운데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해서 저마끔 우마차에 싣는다. 주는 사람들도 의례히 그러려니 한다.

《개별 계약에 의해서 규격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있을 터인데—계약서는 보지도 않고 척척 골라 가는걸 보니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주문한 것을 서로 외우고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감탄까지 하였더니만 그런게 아니구 맹탕 골라 가는 것이다.

물론 본궁 제재 공장과 대상하는 기업소들 사이에 개별 계약이 체결 되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1.4분기에 흥남 비료 공장에서 계약한 규격재를 가져간 것이 전체 공급량의 17.1%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그저 적당히 가져간 것이다. 그러면 설계와 맞지 않아서 어떻게 건설장에서 쓰느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지고 보니 개별 계약의 규격 자체가 건설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어비방하게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이 계약서에 대해서 그리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흥남 트레스트 인수원의 말마따나 《주는대로 갖다 쓰지않으리요. 어서는 거나 주오》 이런식으로 무엇에 쓸지 모르니까 우선 갖다 놓고.—

이 공장들에는 자체의 제재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것만 가져가면 다시 켜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주는 사람도 크게 켜면 실수율이 오르니 좋고 까다롭게 규격을 따지지 않아 좋다고 생각 하지만 실은 인수원이 갖다가 또한번 제재하느라고 톱질을 하고, 3메터 짜리를 쓸데 4메터 짜리를 가져 갔으니 동갱이를 내고 대패질을 하는 통에 실수율이 높아지기는 고사하고 좋은 목재가 수많이 랑비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다.

이처럼 규격재를 쓰지 않는데로부터 수많은 목재가,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재목들을 날려 보내고 있는 셈이다.

아궁으로 들어간 랭상모판 문틀

본궁 제재 공장에서는 매일 같이 산'더미 같은 쪽데기가 난다. 이 쪽데기는 화목으로' 쓰인다.

이 제재 공장 사택 마을에 친척 집이 있어서 나드리 왔던 한 농촌 아주머니는 도끼로 쪽데기를 패고 있는 것을 보자 입을 딱 벌렸다.

《거참, 아깝구먼! 저런 좋은 재목이 있으면 우리 조합에서는 랭상모판 문틀을 얼마든지 만들텐데…》

쪽데기를 이렇게 리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본궁 제재 공장 지도 일'군들도 이 농촌 아주머니만큼 모를 리는 없다. 이 쪽데기를 리용하여 랭상모판 문틀재를 생산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받았고 또 그것이 생산 계획으로 하달도 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매월 하달하는 생산 지시에 랭상모판 문틀재 생산은 포함시키지 않군 했었다. 그래서 밑의 일'군들이 물었다.

《500 립방의 랭상모 문틀재 생산은 빠졌는 데 그건 어떻걸가요?》

《누군 그런 것쯤 모르는 줄 아오? 금년도 계획이 미달 될가바 지금 한창 바쁜 판에 천년 세월하고 쪽데기나 만지고 앉았겠소》

해가 바뀌여 금년 1월이 되자 사방에서 랭상모판 문틀재를 성화 같이 독촉해 왔다. 이를 생산하지 않았다가는 책임이 돌아오리라 생각한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름드리 원목을 갈기갈기 켜고 동강동강 자르기 시작했다.

《이런 좋은 원목으로는 건축용재나 켜구 랭상모판 문틀재는 쪽데기를 리용합시다》하고 제기해 오기도 했다. 그러면 의례《누군 그런 것쯤 모르는 줄 아오? 랭상모 문틀재를 작년도분 500 립방과 금년도 1.4분기분 700 립방을 당장 켜야하는 이 바쁜 판에 천년세월하고 쪽데기만 만지고 앉았겠소.》

그리하여 아까운 원목들로 1,200 립방의 문틀재를 생산해 놓았다.

리용할수 있는 쪽데기를 아궁에 처넣었기 때문에 1,200 립방 즉 600대의 화물자동차에 실을 좋은 원목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시 말해서 질좋은 원목이 그만큼 아궁으로 들어간 셈이다.

대강 자세히

본궁 제재 공장 구내에 들어서면 우마차가 목재를 잔뜩 싣고 한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러 서 있는 것이 눈에 띠인다.

《해가 다 가겠소. 빨리 좀 해 주오》

《자 우리 것부터 해 주우》

알고 보니 인수원들이 가져 갈 목재를 실어 놓고 검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검척원은 상차해 놓은 목재를 새새 틈틈으로 드려다보며 어비방하게 길이 몇메타, 두터이 몇미리 짜리가 몇개 실리여 간다는 것을 검척해야 하는 것이다.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여섯개씩 묶은 것은 19미리 판자요. 일곱개씩 묶은 것은 16미리 판자라고 한다.

물론 선별에서 묶어 놓은 개수에 의해서 몇미리 판자라는 것이 검척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선별에서는 길이와 넓이가 비슷한 판자끼리 모아 놓는다. 두터이가 많이 차이 있는 것만은 따로 골라 놓지만—

《14미리, 16미리, 18미리 판자들이 선별이 까다롭겠군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선별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야말로 대강 자세히 라는 말이 여기서 딱들어 맞는 것 같다.

16미리 판자라고 일곱개씩 묶어 놓은 판자를 재여보니, 23미리, 19미리, 10미리다.

《16미리 짜리는 하나도 없군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돼요…》

이렇게 대강 자세히 선별해 놓은 것을 검척원이 또 대강 자세히 검척하는 것이다. 대강 자세히는 이 공정에서 뿐만이 아니다.

판자를 켜는데도 대강 자세히 켠다. 16미리라고 하는 판자가 한쪽은 23미리이고 한쪽은 19미리이다. 그러니 쓰는 사람은 얇은 편에 맞추어 밀어 내는 수 밖에 없다.

《그까짓 몇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쌓이면 몇만 매의 판자가 다만 표준 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대강 자세히 한데로부터 랑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또 하나 특징은 제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품, 불합격품의 구별이 없다. 제품 검사도 대강 자세히 하는 모양이다.

김 상애

기다린다

—나무는 소발구를 기다리고

—소발구는 길나기를 기다리며

—결정서는 집행을 기다린다

무산 림산 사업소에서는 중간 운재 준비 사업을 굼뜨게 진행함으로써 귀중한 목재를 신속히 건설장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제도와 질서가 없는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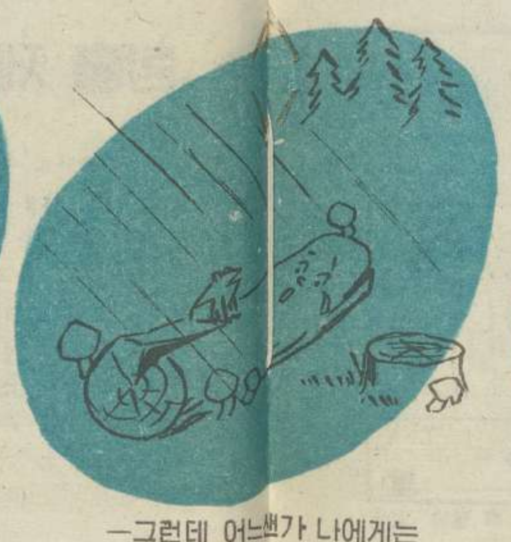
김 대권 그림

나무의 하소연

연암 림산 사업소에서는 벌목한 나무를 산판에서 썩이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나도 건설장에 가게 됐다고 기뻐했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나에게는 버숫이 돋기 시작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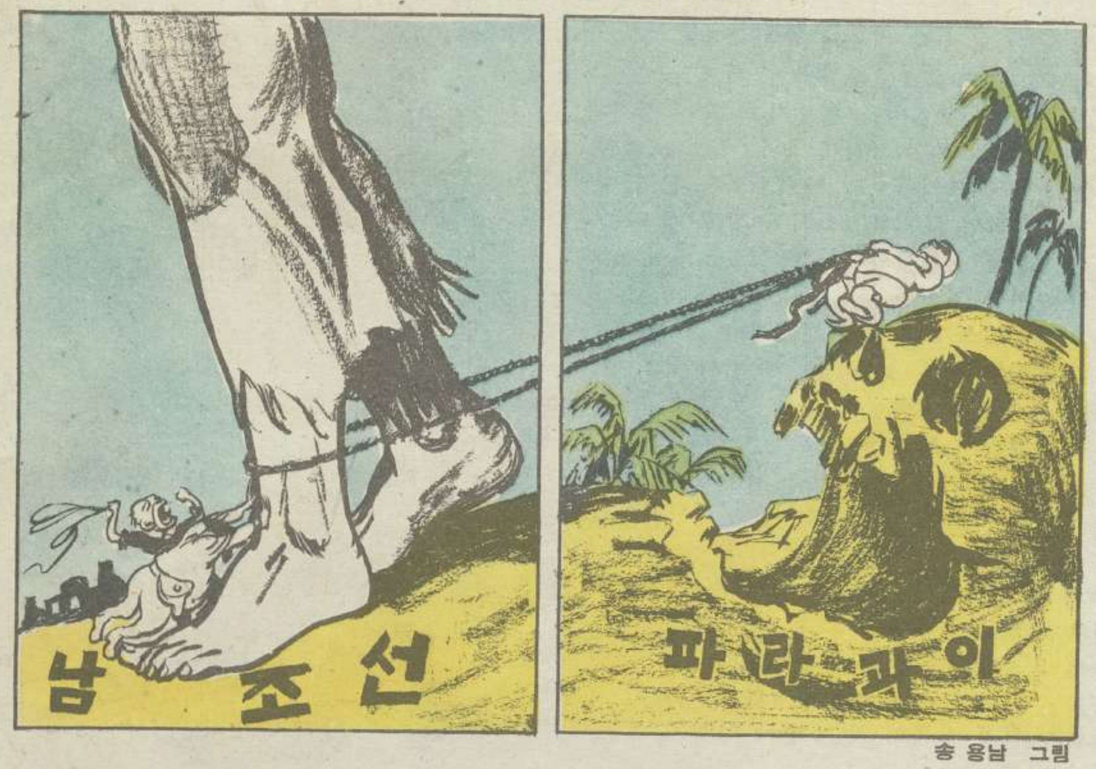
—드디여 다람쥐의 아빠트가 됐으니 누구의 탓일까요?

신선한 그늘에서 썩은 낮잠

황주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주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할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에 황주읍 농업 협동 조합과 부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풍작을 이룬 채소도 주민들에게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허 농택 그림

끌어 갈 수 없다. 죽음의 땅으로!



송 용남 그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박 승히 그림

리승만—나는 죽어도 이 감투는 못 내놓겠다.

감투

한 계흥

경남 고양군 어느 한 마을에서 있은 일이다. 아흔에 가까운 늙은 농민 박 상준과 리 승만 경찰 간에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그래 수세를 당장 낼테야 안낼테야?

순경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늙은이를 노려 보고 있다.

—뭘 땜에 내라는 거유?

윈룽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 움푹하니 패인 눈이건만 순경을 쏘아보는 늙은이의 눈은 정기가 돌고 있다.

—힝! 농사를 지어 먹으며 수세도 몰라!

—물 한 방울 안주고 수세라니?

—힝! 낼라나 안낼라나?

늙은이는 순경의 앞에 바싹 다가서더니 말을 가로 챘다.

—못 내겠시유.

그 순간이다. 순경의 방망이가 늙은이의 등허리와 머리에 마구 사정 없이 내렸다. 순간 늙은이의 감투가 매마른 논바닥에 떨어져 덩굴었다.

한 동안 덤덤히 서 있던 늙은이는 감투를 집으려고 발'길을 떼여 놓았다.

—힝! 감투 그까짓 것이 아쉬워? 당장 수세나 내—

그때 불숙 호탕한 웃음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가르며 들판에 울렸다.

—하…하 그래 당신은 왜 감투를 아쉬워 하는게유 하…—

웬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니 서서 늙은이의 거동만 살피던 순경은 경찰 모자를 매만지며 동이 닿지않게 말을 건넸다.

—늙은게 미쳤군 내가 웬 감투를 아쉬워해—

아픔과 모욕을 참고 서서 웃고 있던 늙은이의 입가에는 이말에 조소가 차고 넘치는 미소가 떠돌았다.

—미친건 당신이여! 개도 안먹을 순경감투 말이여!—

그제사 말귀를 알아차린 순경은 분에 격해 온몸을 들먹거리며 늙은이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당장 무슨 거조래도 내릴듯 도사리고 서 있는 구김새 없는 거동에 그만 기가 눌려 슬금 슬금 뒷걸음 쳤다. 그러나 방망이만은 연신 허공에 내여 휘둘렀다.

—늙은 게 죽고 싶냐 힝—콩알 맛을 볼려나?

—맘대루 해유, 그래 이꼴을 하고도 살었다고 말하겠시유, 아니유, 이게 다 리 승만의 대통령 감투 바람이라우.

늙은이의 궁굴은 말소리가 쩡쩡하니 메아리치며 울렸다.

독자들! 늙은이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의 리 승만의 처지가 잘 대답하고 있다.

아메리카 지배층이 씌워놓은 역적 리 승만 대통령 감투는 운명을 고하고 있다. 바다에 총통 감투가 나떨어진 장개석의 그때 그 형편이 본보기로 되고 있다

인간 쓰레기들의 감투 노름은 항시 그러했다. 《대동아 공영권》을 웨치던 동조의 총리대신 감투도, 휘둘루던 히틀러의 총통감투도 그러했다.

그러기에 늙은이가 채 못한 말을 대신하여 US제 감투 놀음에 대해 필자가 말하련다.

—괴뢰 대통령 감투 놀음도 끝장이 가깝다 네놈들의 감투는 모조리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그 시간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고 단속 —남조선 경찰 일기—

최 영근 그림

미국놈들은 이러한 놈들이다

투기는 도맡아 놓고

남의 땅에 와서는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

백주의 날강도

백 인규 그림

한 두가지 수'자

지난 5월 20일 괴뢰《내무부》에서 1958년 말 현재로 남조선 인구 동태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 중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남조선 총인구 중에서 학교 문에 들어 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59.89%라고 한다. 이 하나의 수'자만 보아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우민화 정책의 후과를 알 수 있다.

이 통계에는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남조선 총인구의 1.36%라고 발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제조업이라고 일컫는 것은 로동자는 물론이고 기업주 사장 중역 사무원(공장의)까지 합친 것이고 거기에 또 수공업자들까지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이다.

기업주와 수공업자들까지 합쳐도 생산에 관계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남짓하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미제의 남조선 민족 산업 파괴가 얼마나 혹심한가를 알 수 있다.

갈아 엎고 심는다

허 능택 그림

이밥을 구경했다

허 능택 그림

백 인균 그림

물 대신 수세

—물은 하느님 보고 달래란 말야!

4월 홍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남조선에 둥지를 튼 이래로 치산치수는 커녕 기왕에 있던 관개 시설이며 제방들도 황폐하게 했으며 산의 나무를 몽땅 삭발한 결과에 소나기만 한번 내려도 곧 홍수 소동이고, 며칠만 비가 오지 않아도 곧 가물이다, 기우제다, 하고 야단 법석을 하게 된다.

조선의 봄은 가무는 철이란 것은 삼척 동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통신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4월 중에 내린 비로 각처에서 홍수 소동이 일어나서, 7명이 물에 빠져 죽고 10명이 부상 당하고 64동의 집이 물에 떠나려 갔다고 한다. 그리고 35개소에서 제방이 허물어 졌으며 침수된 전답이 9.394 정보라고 한다.

가장 가무는 달의 하나인 4월에도 이러하니 장마철은 어떻게 지낼려는지—

남조선의 기름진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원한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한국판 민주주의》

류 계 환

《민주당》 대변인 조 재천은 5월 16일 《대한 민국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판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었다.

그는 며칠 전에 《자유당》의 《거물급 간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향신문》 폐간과 관련하여 외국 통신 기자들에게 옹색한 변명을 하면서 《한국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한 말에 대하여 이 질문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신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20 여 개의 끔찍한 《법안》들이 기상 천외의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던 그 유명한 《24 파동》때만 해도 《국회 의원》인 그는 70 여 명의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의사당》안에서 300 여 명의 무술 경관들에게 무리매를 얻어 맞고 《법안》들이 통과되는 동안 지하실에 감금되여 있었으니까 그런 사실들을 념두에 두면서 질문했을 것이다.

괴뢰 《외무부 장관》도 답변이 없고 질문을 제기한 조 재천이도 이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줄 처지에 있지 못하므로 필자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한국판 민주주의》—그것은 히틀러의 《민주주의》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야합해서 이 세상에 태여난 수치스러운 사생아이다.

이 자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 헌병과 경찰과 사설 테로와 감옥과 류치장이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를 따라 다닌다.

그는 출생한 그날부터 남조선 천지를 활보하면서 고약한 쿠린내를 풍기는 데 그 냄새는 가는 곳 마다에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것이 그의 에미인 히틀러에게서 물려 받은 냄새인지 또는 애비인 미국에서 물려 받은 것인지 분간하기는 곤난하다. 본래 혼혈아는 그런 것을 가르기가 곤난한가부다. 부모를 닮아서 천성이 고약한 그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으며 금품을 빼앗고 농터를 빼앗고 집을 파괴하고 인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보다도 더 헐하게 끊고 있으며 인권을 헌 신짝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며 짓밟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나운 발톱에 걸리여 애꿏은 목숨을 끊기였던가! 그러나 그의 횡폭한 소행은 다만 인민들에 대해서만 가해진 것은 아니다.

오늘 그의 괴 묻은 발톱은 지어 지배층 내부의 야당 계렬의 정치 활동 령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는 살아 남은 출판물을 닥치는 대로 말아감고 또 그들의 건물과 집회들을 테사로 습격하고 있다.

작년에 70 여종의 출판물을 말아 먹은 그는 이번에는 《경향신문》을 말아 먹었다. 한 곳에서는 출입 기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처넣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취재하는 사진 반원들을 네 거리에 때려 눕히고 있다. 며칠 전에는 공인된 야당 기관지를 구독하는 사람이 끌려 갔고 그 다음 날에는 시국 강연회에 참가했던 군중들이 봉변을 당했다.

눈은 감아라, 귀는 막아라, 입은 봉해라, 옥외 집회는 안되고 옥내 집회도 안된다. 야간 통행을 하지 말라, 떼를 지어 거리에 나다니지 말라, 파업은 비법이다, 시위는 금물이다—이것이 바로 이 사생아가 부르짖는 구호이며 《한국판 민주주의》의 정체다.

사고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뇌수를 박탈하며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혀를 잘라내며 관찰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눈'동자를 도려내는 것—이것이 《한국판 민주주의》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남조선에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민주주의 그림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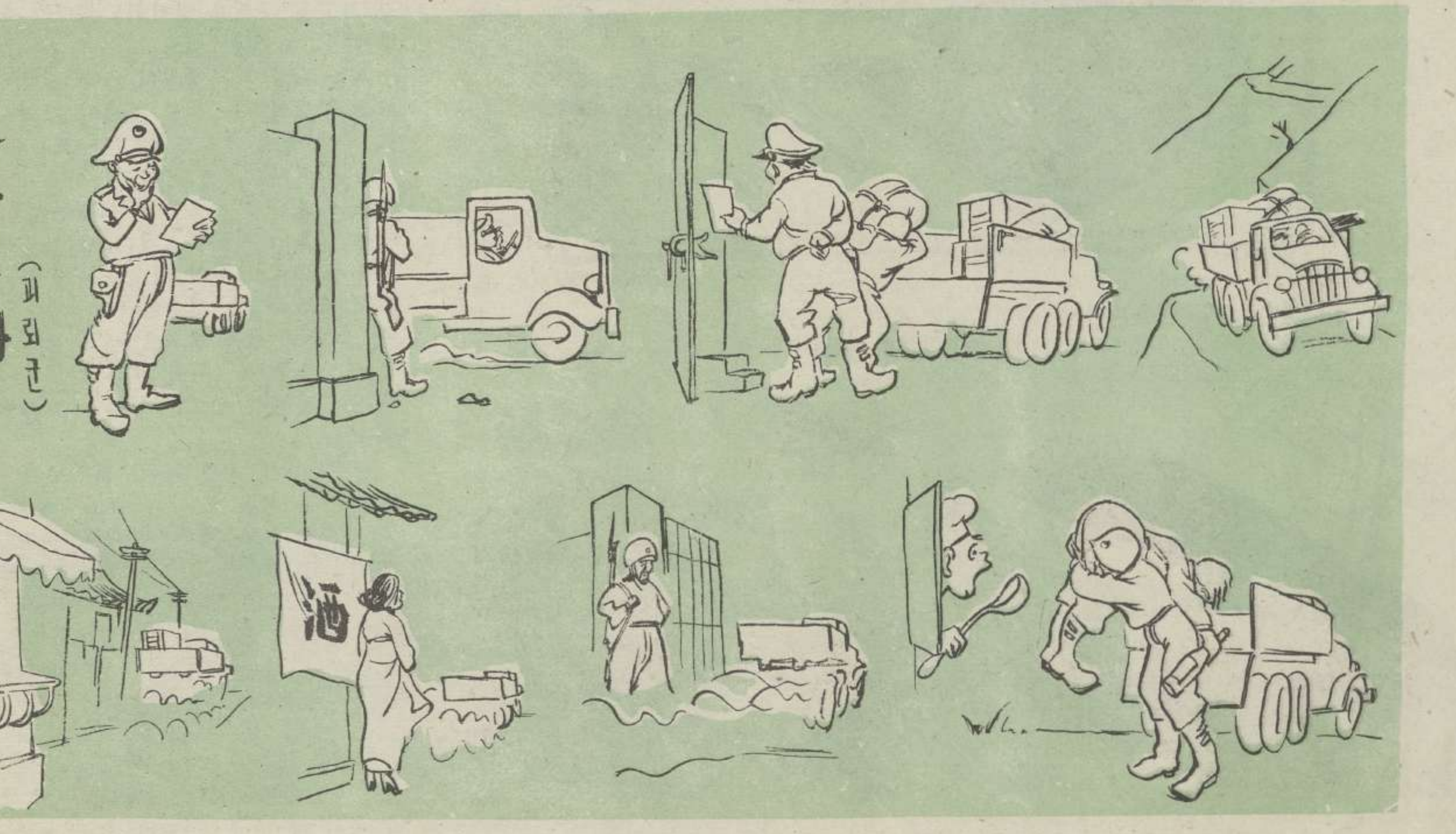
《한국판 민주주의》—그것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비슷도 안한 파쑈 경찰 테로 독재를 《민주주의》의 보재기로 뒤집어 씌운 하나의 요물이다.

양키들이 조종하고 리 승만이가 양육하는 이 사생아의 광란 밑에서 남조선은 황폐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찬 서리 맞은 황엽마냥 시들어가며 또 죽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야수를 제거하려고 한다. 미군이 물러가면 리 승만 독재—이 야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남조선에 정녕 인생의 봄이 깃들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봄을 위해 싸우고 있다.

후방물자 (괴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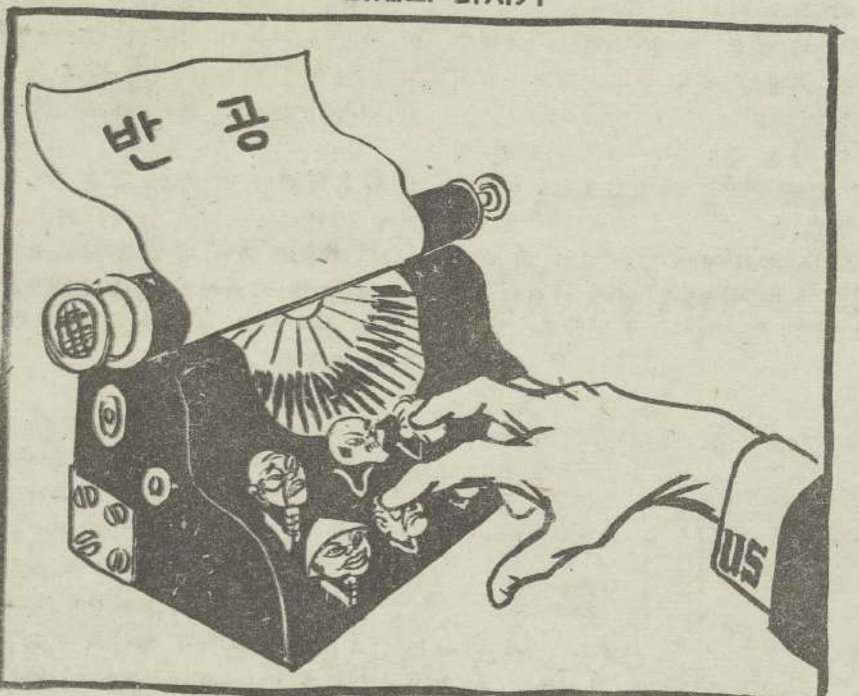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죽엄을 재촉하는 북소리

송 용남 그림

미제의 타자기



최 영근 그림

반공자들의 호텔

최 영근 그림

히틀러—자리는 벌써 준비되여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산된 외교

홍 우만

제네바에서는 예정대로 5월 11일부터 외상 회의가 열렸으며 외상 회의에서는 쏘련이 주장한 바 대로 대독 강화 조약 체결 문제와 서부 베를린을 비군사화된 자유 도시로 만드는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선차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론의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서부 독일 외상 브렌타노를 포함하여 우선 독일 사람들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브렌타노가 서부 독일 대표단을 인솔하고 제네바에 도착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그가 독일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인상을 조성할 수도 있었다. 전후 14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해서 독일 인민들에게나 구라파 인민들에게나 커다란 재난과 불안을 끼치고 있는 것이, 대독 강화 조약과 서부 베를린 문제다. 그러나 그는 첫날부터 오늘까지 회의장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찾아 간 불란서 신문 《피가로》 기자에게 그는 자랑삼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상 회의장의 문을 열고 들어 가지 않을 결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게 된 리유인즉 외상 회의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서부 독일 외상이라는 자가 독일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얼굴도 붉히지 않고 선포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는 외상 회의에서의 공식 용어에 독일어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대표들의 책상 우에 대표단의 국가 표식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자기가 인솔하고 있는 서독 대표단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기'발을 다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서독 대표들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서독 대표들은 회의 석상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표단이 독일 말로 하는 연설까지 영어 번역을 통해서만 듣고 있다.

브렌타노가 국제 회의 력사에서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존재가 승인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없애버리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자기가 대표하였다고 하는 서부 독일 본 정부의 존재 자체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브렌타노의 《사업》은 여기에만 끝이지 않는다. 그는 제네바 교외에 있는 이전 토이기 왕의 개인 별장이였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끔 미, 영, 불 외상들의 숙소를 찾아 가군 한다. 려관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회의를 성과 없는 것으로 만들고 대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지 말며 서부 베를린에서 점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서부 독일을 3차 대전의 화약고로 더욱 만들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숙덕거리군 한다.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그를 《려관 외교관》이니 《박쥐 외교관》이니 하고 랭소하는 별명까지 붙이게 되였다.

명색 외교관이라는 자가 회의장에 나가는 것은 한사코 싫어하면서 남의 눈을 피하여 려관 뒤'골방으로나 찾아 다니게 된다면 그의 위인도 짐작할만 하다. 그런데 그의 《려관 외교》도 결코 마음 먹은 대로는 되지 않고 있다.

원래 미, 영, 불 대표들도 회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일 문제의 해결을 방해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쏘련 대표의 예리한 분석과 공명 정대한 주장에 의하여 그들의 구실은 계속 론박 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구체적인 문제 토의에로 끌려 들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브렌타노는 면목을 몽땅 잃어버렸고 자세를 바로 가지지 못할만큼 립장이 어색해 가고만 있다.

제네바 외상 회의가 4주일째로 접어 들던 6월 3일에 브렌타노는 미국 통신 기자에게 《지금까지의 회의 경과는 심히 불만족하다.》고 투덜거린 것도 십분 짐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흥미는 브렌타노가 회의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그만 두었다거나 또는 뒤'전에 앉아서도 안절부절하게 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국 상전에다 의탁한 괴뢰 도당의 이른바 외교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파산되였는가를 브렌타노의 례에서 보고 있는 데 있다.

송 용남 그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령도자

지난 5월 20일 밀워키에서 서방 국가내 과학자 교육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수소탄의 발명자로 알려지고 있는 에드워드 텔러 박사는 《20 세기 말까지에는 전 세계가 쏘련이 구상하는 대로 설계될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쏘련의 과학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과학은 비참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쏘련은 과학 분야에서 의심할 바 없이 세계적 지도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미국이) 금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잃어버린 령도권을 다시 찾아 보려고 애쓰는 것 뿐이다.》

그는 미국이 과학 분야에서 쏘련을 따라 가려면 쏘련만 못지 않게 교육 설비를 갖추며 쏘련에서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교육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적인 소질이 있는 아동들을 뽑아서 일찍부터 과학 공부를 시켜 재질을 발전시킬 것을 제창하였다.

우리는 에드워드 텔러 박사가 다음과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지 않을 수 없었거나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훌륭한 재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부할 수 없는 수백만 근로자의 자녀들이 있는 미국이, 누구나가 다 마음껏 배우며 재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쏘련의 과학을 따라 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특권 계급의 자녀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제도— 자본주의 제도를 청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에서

홍 종호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479
발행 1959. 6. 27
(값 40 전)

풍전 등화

박 승히 그림